

지역 공예가 역량 강화 '완주 월간 공예'

완주문화관광재단, 공예주간 연계... 해외 작가 워크숍·현대적 비파 강연 개최

완주문화관광재단은 완주공예오픈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지역 공예가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창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완주 월간 공예'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완주 월간 공예는 완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공예 분야 창작자와 강사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다. 급변하는 공예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브랜딩, 유통, 신소재 등 분야별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가와 참여자 간 교류를 통해 지역 공예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6월에는 해외 작가 초청 워크숍과 전통악기의 현대적 활용 사례를 소개하는 특별 강연이 마련된다.

오는 21일에는 대만 플로럴 디자인 디렉터 이치창(Lee Chi Chang)을 초청해 '프리미엄 플라워 디자인 구조물 워크숍'을 진행한다. 공예와 플라워 디자인이 결합된 창의적인 공간 연출 사례를 공유하고 실습을 통해 새로운 표현 방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어 27일에는 전통악기 플랫폼 비파선셋(PIPA SUNSET) 대표이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대문 헌터스 캐릭터 진우의 실



완주 월간 공예 '비파선셋 비파연주' 포스터

제 모델로 알려진 김주영 연주자가 강연자로 나선다. '전통악기 소재의 현대적 재해석'을 주제로 한 강연과 함께 비파 연주를 선보이며 전통 소재의 확장 가능성과 현대적 활용 사례

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6 공예주간과 연계해 전액 무료로 운영된다. 다만 전문가 과정인 '프리미엄 플라워 디자인 구조물 워크숍'은 공예 강사 및 관련 분야 종사자 30명을 대상으로 신청서 검토 후 사전 접수 순으로 참가자를 선정한다. 반면 '전통악기 소재의 현대적 재해석' 강연과 연주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현장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완주공예오픈스튜디오는 2025년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복합문화 플랫폼으로, 지역 내 부족한 문화 기반을 확충하고 공예 중심의 창작·체험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공예가들이 글로벌 트렌드를 흡수하고 자생력을 갖춘 창작 주체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완주 월간 공예는 지역 공예가들이 단순한 제작자를 넘어 기획자, 교육자, 브랜드 디렉터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완주의 특색을 담은 공예 상품 개발과 유통 채널 다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량 강화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종합예술축제 '제30회 정읍예술제'

정읍시, 13~19일 공연·체험 풍성

정읍시를 대표하는 종합예술축제인 '제30회 정읍예술제'가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정읍시 예술회관 일대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행사로 꾸러진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정읍지회(지회창최창수)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종합예술축제로 진행된다.

축제 첫날인 13일 정읍시예술회관 주차장 행사장에서는 시민 참여형 공예 체험 공간(부스)을 운영한다. 방문객들은 머그잔 만들기를 비롯해 열쇠고리(키링) 제작, 물레 체험 등을 직접 즐길 수 있다.

이튿날인 14일 오후 2시 정읍시예술회관 공연장에서는 지역 예술단체의 식전 공연이 열린다. 이어 오후 6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국악, 무용, 음악, 연예예술인협회가 참여하는 연합 공연이 무대를 채운다. 오후 7시에는 지역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뽐내는 '제10회 청소년댄스페스티벌'이 열려 축제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축제 기간 전국 규모의 행사가 함께 열려 볼거리를 풍성하게 한다. 13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는 대한무용협회 정읍지부가 주관하는 '제12회 정읍 전국 단풍무용경연대회'가 열려 전국 무용인들이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인다.

같은 날 청소년수련관 녹두홀에서는 한국문인협회 정읍지부 주관으로 '제20회 상춘곡문학제'와 '제11회 상춘곡 낭송대회'가 개최돼 문



학의 아름다움을 시민들과 나눈다. /정읍=김태환 기자

세계적 미술사 유희진 화려한 무대, 김제서 만난다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세계적인 미술사 '유희진 더 이미지네이션'이 오는 26일 오후 7시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아시아 최초로 '세계 미술 웹피

연십(F.I.S.M)'에서 스테이지부문 그랑프리를 달성하고 클랩매직 이탈리아 무대 미술부문과 '더매지스타' 등 화려한 우승 경력을 가진 세계적인 미술사 유희진이 펼치는 화려한 무대

가 열린다.

관람권 예매는 오는 16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한다.

유희진 미술사는 "제 꿈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제 상상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이번 공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깡패와 굿패

11부 '굿패와 깡패' (2)

심장마비요?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생생형 시로 제작된 이미지

붉은여우는 내내 동식을 살인 혐의자로 보고 조사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같이 사우나를 가자니. 허물없이 알몸으로 탕에 들어갈 만큼 붉은여우와 친했던가.

대체 무슨 공공이인가. 동식은 박창수와 강용대의 죽음에 대해서는 떳떳하다. 어쨌든 사우나를 같이 하자니 건 적어도 동식에게서 살인 혐의는 제거되었다는 시그널일 게다. 살다 살다 형사하고 사우나를 하다니 천지가 개벽할 노릇이다.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의 아니게 며칠을 눈물로 보내고 말았다. 사우나가 생각날 법도 했다. 동식할 사람이 형사인 게 문제일 것 같지만 동식은 전과는 달리 붉은여우를 별스럽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몸을 대충 물로 씻고 탕에 들어가 앉았는데 붉은여우가 동식 곁으로 와서 몸을 탕에 담았다.

"아우, 시원해! 오랜만에 석정온천 물에 몸을 담그니까 그동안 묵었던 체증이 확 날아가네. 허허허."

"그나저나 어떻게 된 겁니까?"

궁금한 것을 먼저 꺼냈다.

"아, 그거?"

붉은여우는 흥미를 잃은 투였다.

"자네는 무혐이야. 박창수 그 사람 심장마비야."

"심장..... 마비요?"

붉은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마비라니. 입에서 헛바람이 빠지고 말았다. 하필이면 동식을 만난 직후 심장마비를 일으켰단 말인가. 어처구니없다는 게 이런 때 쓰는 말인가.

강정근으로부터 들은 바대로라면 박창수라는 인물은 며칠 전까지 들개처럼 살아왔던 동식의 삶과 발반 다르지 않은 자였다. 박명희와 강남준에게 해를 입혔던 인물 아닌가. 일말의 동정심도 일지 않았다.

"부검 결과가 빨리 안 나와서 말이야. 조사가 늦어졌어. 그리고 뭐 다른 요인이 있나 더 조사를 하느라고."

"제가..... 심장마비의 원인을 제공했지 않나 그런 거 말입니까?"

"흐흐흐.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지. 하지만 자네가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차 안에서 돈 봉투가 발견되었지. 그래서 일찌감치 자네가 무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어."

며칠 전 동식이었다면 당장 붉은여우의 따귀라도 한 대 울러붙였으면 싶었을 것이다. 동식은 대신 숨을 길게 내뿔었다. 자신

의 태생을 알고 난 뒤 동식은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음에 틀림없었다.

"강용대 씨는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 사람도 같은 거야."

"심장..... 마비요?"

붉은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심거운 일이 있다. 어떻게 두 사람 다 심장마비로 죽었다단 말인가.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한편의 희극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으나 동식에게는 달리 느껴졌다. 한 시대의 비극의 종지부를 찍는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

희생자인 동식의 부모인 강남준과 박명희에 이어 가해자인 박창수와 강용대가 모두 비극의 무대에서 사라졌다는 느낌. 동식은 머리를 물속으로 깊이 들이밀었다.

사우나를 마친 동식은 붉은여우가 사과하는 의미로 저녁을 사겠다고 하여 같이 저녁을 먹었다.

그동안의 심경 변화로 개과천선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 의미마저도 뛰어난 어떤 의지가 동식에게 확고했던 것이다.

저녁을 먹고 나오는데 시내가 사람들로 시끌벅적하고 굿패의 농악소리가 모양성광장에서 요란했다.

오늘이 정월대보름인가.

"뭐 하는 날이에요?"

"고창에서 유명하다는 오거리당산제 하는 날 아닌가."

"오거리..... 당산제요?"

문득, 이렇듯 고창농악을 소개할 때, 고창에서 오거리 당산제를 다시 시작하면서 연행할 농악단이 필요했고, 그 때문에 고창농악단이 새롭게 결성되어 오늘에 이르렀다는 말을 했던 게 기억났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